

네 오 세 미 테 크

김진학



회사와 내가 더불어 성장하는 일터

오 해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인천에 위치한 네오세미테크에 입사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대기업 취업에 실패하다가 문득 유망한 벤처기업을 찾아 지원해보자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는 신문기사와 인터넷을 통해 유망벤처기업을 찾던 중 네오세미테크 공채공고를 접하고 회사정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네오세미테크는 2000년도에 설립되어 2인치부터 6인치까지의 GaAs wafer를 생산하며 Ingot의 Growing, Shaping, Polishing, Packing까지의 모든 공정을 담당하는 업체입니다. 세계적으로 Ingot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는 10개 미만이며 국내에서는 최초였습니다. 설립 3년 만에 수출로 1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현재 중국에 현지공장설립을 추진 중인 유망한 벤처기업이었습니다.

또 매년 연봉협상을 하며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점심과 저녁식사가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각 팀별로 연장근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 근무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오후 12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이고 주 6일 근무에 토요일은 오전근무만하는 회사였습니다.

나의 미래를 맡겨도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원서를 넣었습니다. 처음 면접을 보기위해 인천공장을 찾았을 때는 예상외의 적은 인원과 삭막한 공장 분위기에 주춤거리기도 했습니다. 최종 합격되어 3일간의 교육과 1주일간의 현장관찰을 하면서 그저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오퍼레이터수준의 업무인 것 같아 실망도 했습니다. 게다가 부장급까지도 현장에 투입되어 생산을 하는 것도 잘 납득되지 않아 향후 비전까지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 투입되어 직접 Wafer를 생산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실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선 회사에서 돌아가는 모든 과정이 우리만의 기술과 노하우를 쌓아가는 과정이었고 우리 회사에서는 독창적인 기술개발과 노하우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시점이었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갖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밤낮없이 현장에서 일해 왔던 고생스러운 과정으로 인해 점점 체계를 잡아가고 있었으며, 이제 국내를 비롯한 외국 그 어떤 기업과의 경쟁에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깨달아 가다보니 부장님이 직접 현장에서 함께 일하시며 그에 따라 개선사항과 실험데이터 결론을 팀원들과 함께 제시해나가는 모습이 든든해 보였습니다. 책상 앞의 탁상공론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살아있는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까지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봉 역시 벤처기업으로서는 전혀 뒤지지 않아 저 스스로도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봉과 근무시간 등의 여건이 대기업보다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설립 후 매년 증가하는 매출액과 외국 대기업과의 수출계약, 중국의 현지 공장 설립 추진을 보면서 회사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비록 지금은 적은 연봉과 2교대, 3교대의 근무를 하며 몸이 피곤하긴 하지만 머지않아 우리의 노력과 인내로 회사가 크게 번창해서 반드시 그 대가가 돌아올 것이란 확신에 불평 없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리가 잡힌 대기업에서 개인이 성공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힘든 취업보다는,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해질만한 유망벤처기업에 도전하여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 더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에 어렵게 일한만큼 회사가 자리 잡혔을 때에는 그만큼 임금과 연봉이 보답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구직자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자신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벤처기업에도 꾸준히 도전해 보세요. 화이팅!